

설 명절, 가족 선물 3~5만원대 과일 선호

농진청, 설 명절 농식품 구매 유형 분석 발표

올해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가족에게 줄 3~5만 원대 실속형 과일 품목을 구매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물과 농산물은 '가격', 축산물은 '품질'을 보고 구매처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700명을 대상으로 1월 19~2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명

절 농산물 구매 유형 변화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농산물 판매 대응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소비자의 약 89%가 가족 선물을 구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선물 예정 품목은 농식품이 많았고 3~5만 원대(25.7%) 과일 선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38%), 온라인(35%), 전문점(8%)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대형마트 비중이 높지만, 온라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



였다. 설에 많이 구매하는 과일은 차레상에 올라가는 사과(27%), 배(21%), 귤(16%)이 차지했다.

축산물은 국내산 쇠고기 국거리용(21%), 국내산 쇠고기 갈비·찜용(11%), 외국산 쇠고기 갈비·찜용(10%) 등의 순이었다.

차레용 과일을 구매할 때는 여전히 크기를 우선시하지만, 예년과 달리 구매 개수는 줄이는 양상을 띠었다. 육류 역시 예년 명절과 같이 부위와 원산지 위주로 고르지만, 음식의 양은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설 농식품 구매 특성 조사 결과로 미루어 생산자는 가격 부담이 큰 과일을 소규모 실속형으로 포장하고, 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다른 과일과 사과, 배를 혼합상품 세트로 구성해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옥기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주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24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2024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

전북은행과 함께... 소리문화의 전당서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24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이번 신년음악회는 '비상하는 청룡처럼 소망하는 모든 일에 화룡점점 하자'는 희망찬 새해 메시지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모스틀리 필하모니 45인조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가수 이찬원, 풀킴, 알디, 소프라노 신델라, 테너 김남두 등 국내 최정상급의 뮤지션이 무대에 올라 약 2시간 동안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이 청룡의 기운을 타고 비상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 사랑을 실천함은 물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와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강한 은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새만금개발청, 기술사회와 '안전문화·기술협력' 협약

새만금개발청이 29일 한국기술사회와 새만금사업구역 안전문화 정착 및 기술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안 새만금개발청장과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기술사회는 1965년에 설립돼 현재 과학, 기술 분야 등 총 84개 종목 5만8000여명 기술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사업 지역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정보 및 자료 공유, 재난대응 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재난인원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 및 3대 허브 산업(첨단제조산업,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허브) 추진 등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기술 정보교류와 기술적 자문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안 청장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 온 기술사회와의 협력은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농협, 인재 발굴·육성 위한 전북인사업무협의회 개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한 지역사회·농업발전 초석 마련'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9일 전북본부에서 전북도인사업무협의회(의장 고창 흥덕농협 백영중 조합장)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지역 각 시군을 대표하는 16명의 농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과 100년을 향하는 농협의 성장 동력인 인재 선발을 위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아울러 전북지역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농

축협 상간지 동시채용에 대한 각종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갑진년 첫 개최된 협의회인 만큼 참석 한 조합장들은 '근본을 바르게 하고 인재를 밝게 한다'라는 정본청원의 자세로 경영에 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사고근절 및 대내외 조직 이미지 개선을 위한 '3행 3무' 실천과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3행 3무 실천운동은 농협 임직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항목(정령, 소통배려)과 근절해야 할 3가지 항목(사고 감질, 성희롱)으로 구성된 범농협 실천운동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겠으며, 3행 3무의 적극 실천을 통해 농업인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깨끗한 청렴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29일 전북본부에서 전북도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송호석 환경청장,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구간 현장점검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 청장은 29일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 예정 구간을 방문하여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2024년 10월부터 전주천의 국가하천 기점이 전주시 삼천 합류점에서 완주군 수원천 합류점으로 변경된다.

이에 기존 국가하천 구간(7km)과 더불어 해당 상류구간(14.75km)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국가에서 관리된다.

송 청장은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 청장은 29일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 예정 구간을 방문하여 하천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인수·인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우기철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주천유역 홍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승격구간을 포함한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중으로 시민단체, 관련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체를 구성해 이·치수 안전성,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옥기기자

산업부, 18개 사업 통합 공모

산단, 정주·근로 여건 개선 등 4700억 이상 투입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산업단지 환경개선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체계적인 산단 지원 추진으로 산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4700억원 이상이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20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6개 부처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부처는 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이다.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6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을 올해부터 패키지 지원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극대 제조업의 핵심 공간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